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지각과 가족스트레스*

Communications and Family Stress Between Mother and Adolescent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김오남

조교수 김경신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Univ.

Doctoral Course Student : Kim, Oh Nam

Assistant Prof : Kim, Kyeong Shin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find out general trends of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amily stress, to estimate the differences of communication patterns and family stres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and communication variables, and to analyze communication variables influencing on family stress.

The samples were selected from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mothers and 342 couples were used in final analysis. Barnes & Olson(1982)'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PACI) and McCubbin(1981)'s family stress scale(FILE) were used to measure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pattern and family stress.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Chi-square, F-test, Duncan-test, multiple regression, Pearson's r , and Chronbach's α .

The result are summerized as follows:

1) Mothers highly perceived mother-adolescent open communication pattern but adolescents highly revealed mother-adolescent close communication pattern. The general trends of family stress showed that adolescents stress is higher than mothers.

* 본 논문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2) Communication pattern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ther's age, adolescent's sex and communication variables except usual communication time. Family str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mother's education and conversation variables. Generally when mothers and adolescents communicated insufficiently and were not satisfied with communication patterns, family stress was increased.

3) Family str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communication patterns.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communication patterns are crucial to family stress. Especially open communication pattern between mothers and adolescents was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communication patterns, for family stress was reduced.

I. 서론

1. 문제의 제기

가족내의 인간관계 중 부모자녀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영구적인 관계로 인간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또한 일방적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적 교류관계로서 광범위한 경험과 책임을 공유하는 밀접한 관계이다.

그러나 현대의 부모자녀관계는 과거의 권위와 순종의 관계에서 점차 부모의 높은 기대 수준과 자녀의 독립적인 자기주장능력의 발달 등으로 관계 자체가 비기능적으로 됨으로써 가족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모자녀관계의 문제를 극복하고 결속을 강화시키는데는 서로의 관심, 가족이념, 존경심, 의사소통, 가족응집도 등이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진밀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Germer, 1974) 가정생활을 원만하고 행복하게 영위하는데 있어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며 문제해결을 위해서 가족간의 개방된 의사소통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순옥, 1990)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보다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족원간의 이해와 수용을 유발함으로써 가족원간의 관계를 기능적이고 만족스럽게 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현대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인간을 둘러싼 가족내외의 환경변화는 인간에게 새로운 직

업양식을 유도하고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사건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있어 가족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Selye(1980)는 스트레스가 질병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고, Nelson과 Nelson(1981)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을 때 정신신체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원을 모색, 개발하여 이를 가족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선행연구들(김용미, 1991; 차은정, 1992)에 의하면 가족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는 가족일 수록 가족스트레스를 덜 받고,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 수록 가족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의 잘못된 인식과 이해부족은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가족의 갈등이나 긴장이 표명화되어 급기야는 가족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증대시키는 방법의 모색이 스트레스감소라는 측면에서 현대 가정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본다.

따라서 현대 가족에 있어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개방적이고 올바른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연구가 필히 요구된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도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가족스트레스를 분석함으로써 가족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할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의사소통유형과 가족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1) 어머니와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유형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2) 어머니와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가족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 의사소통변인별로 의사소통유형과 가족스트레스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의사소통변인별로 의사소통유형은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 2) 사회인구학적 변인, 의사소통변인별로 가족스트레스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의사소통유형은 가족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1)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가족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 2) 의사소통변인, 의사소통유형이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의사소통에 대한 개념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상태이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의사소통유형이란 의사소통과정 또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어떻게 문자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지를 표시하기 위해 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인데 이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분류한 바, Beaubien(1970)은 의사소통과정에서 일어나는 메시지의 선택, 메시지의 전달, 피이드백의 요소를 어떤 범주의 집단으로 특성화시켜 의사소통유형을 구분하였다. 또한 부모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을 청소년의 대화행동과 어머니의 반응을 관련지어 쌍방차단, 자녀차단-어머니개방, 자녀개방-어머니차단, 쌍방차단형으로 분류하였다.(김규원·이정우, 1989 재인용)

Barnes와 Olson(1985)은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을 Circumplex Model에 기초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의 기능적인 수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다. Rithie와 Fitzpatrick(1990)은 부모와 자녀간에 의사소통유형을 대화지향형과 순응지향형으로 나누었고, Satir(1972)는 대인간의 수많은 의사소통을 관찰하여 수평형, 회유형, 비난형, 계산형, 산만형으로, Norton(1978)은 무심형, 친근형, 개방형, 경청형, 표현형, 지배형, 논쟁형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또한 Gordon(1975)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을 You-message와 I-message로 구분하였다. Grotevant, Cooper(1983)와 Steinberg(1981)는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은 각각 다른 점이 있다고 했다. (김순옥, 1990 재인용)

국내연구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유형을 개방형과 문제형으로 나눠서 연구(조은경, 1992; 차은정, 1992)하였고, 김정희(1987)는 수평협력적 쌍방통행식과 수직, 강압, 지시적인 일방통행식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홍기선(1985)은 메시지의 흐름의 방향에 따라 일방적, 반응적, 상호작용적 유형으로 나뉜다. 또한, 의사소통유형을 쌍방개방형, 쌍방차단형, 자녀차단-어머니개방형, 자녀개방-어머니차단형으로 나눠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유형이 쌍방차단형과 쌍방개방형의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고 지적한 연구들도 있다. (김규원·이정우, 1989; 최선남, 1990)

한편, 의사소통 유형과 관련된다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의사소통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연령, 학력, 소득, 직업유무, 대화시간, 대화욕구, 가정분위기, 가족형태등을 들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김진숙·유영주, 1985), 아들보다 딸이 더 개방적(김규원·이정우, 1989; 조은경, 1992)이라고 보고한 반면에, 아들이 딸보다 쌍방통행식 의사소통을 한다는 다소 상반된 결과(김정희, 1987)를 보이고 있다. 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에 대해서는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장호선(1986)과 이석경(1987)은 이들이 모두 부모자녀간

의 의사소통 유형에 차이를 주지 않는다고 하였고, 김진희(1989)와 조은경(1992)은 부모의 학력이 높고 아버지가 전문직 종사자일 때 개방적 의사소통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이걸남, 1989; 권혜진, 1992)가 있는 반면에, 김순옥(1990)은 부의 직업이나 모의 직업유무는 의사소통 개방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가족의 소득이 높을수록 개방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연령이 적을수록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최선남, 1990), 대화시간이 많고(김규원·이정우, 1989; 장호선, 1986), 대화욕구가 높을 때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장호선, 1986)고 하였다. 그리고 가정분위기가 화목할 수록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김순옥, 1990; 최선남, 1990), 가족형태에서 핵가족일 때 의사소통이 더 활발히 일어난다(권혜진, 1992)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eaubien(1970)과 최선남(1990)의 연구 등을 기초로 해서 어머니와 자녀 둘다 개방적인 양방 개방형, 둘다 차단적인 양방차단형, 어머니는 개방적이나 자녀가 차단하는 모개방-자차단형, 자녀는 개방적이나 어머니가 차단하는 자개방-모차단형으로 구분하였다.

2. 가족스트레스

Hill(1958)은 스트레스원을 가족체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생활사건과 동일하게 보고 스트레스원에 의해 발생된 긴장에 대한 가족의 반응상태를 가족스트레스라 규정했다. 즉 가족이 가족원간의 상호의존적인 작용을 하는 복합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체계로 간주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스트레스원과 과정, 상황, 반응상태등을 개개인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가족원들의 상호작용과 가족원구조 안에서의 관점으로 가족이라는 상에서 스트레스를 파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Hill(1958)은 위기 또는 스트레스 상황발생의 인과모델로 위기상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ABC-X모델을 제시하면서 스트레스 이론형성에 직접적인 기초를 이루었다. 사회적 위기상

황이 가족적 위기로 발전하는 과정을 ABC-X모델로서 제시하고 가족이 위기를 효과적으로 또는 창조적으로 극복하여 다시 일상적으로 극복하는 데에는 ABC-X모델의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했으며, 특히 가족자원과 스트레스원에 대한 의미와 평가는 가족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매개요인이라고 하였다. McCubbin과 그의 동료들(1980)은 이 모델에 의하면 생활사건과 이에 관련된 변화량은 가족체계내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며 변화에 대한 가족의 판단, 가족적응력과 관련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응집력, 내적인 조직 또한 가족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oss(1988)는 가족스트레스원이란 가족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시키는 생활사건을 의미하며 가족스트레스나 위기는 가족의 스트레스원에 대한 반응으로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상태,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른 긴장이나 부담감을 스트레스인지라고 하였다. 가족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비록 자원과 대응하는 능력이 비슷하더라도 스트레스원이나 가족전환점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즉 스트레스원에 대한 가족이 부여하는 의미나 평가에 따라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가족스트레스와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관한 국내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가족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자녀의 성별,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 취업유무,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지속년수, 자녀수등이 있다. 자녀의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한 연구(차은정, 1992)가 있는 반면 이와 상반된 결과(이도영, 1990)도 있으며, 스트레스원이나 학교특성에 따라 남녀차이를 보인다는 연구(이정학, 1992)도 있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연령, 학력, 소득 등에 있어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머니의 연령이 증가할 때 특히 40대에 스트레스가 높다고 한 연구(남유리, 1989; 김경아·이정우, 1990)가 있고, 스트레스가 연령과는 무관하다는 연구결과(김양희·전세경, 1989)도 있다. 어머니의 학력에 있어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김경아·

이정우, 1990)가 있고 반면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김양희·전세경, 1989)도 있다. 소득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남유리, 1989)가 있는 반면에 역의 함수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박난희, 1987)도 있다. 취업유무에 있어서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한 연구(권경희, 1986; 남유리, 1989)와는 대조적으로 취업주부가 더 높은 스트레스를 갖는다는 연구(김경아·이정우, 1990)가 있다.

이와같이 가족스트레스에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가족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좀 더 명확한 척도로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여러 변인들이 주는 영향력을 보고자 한다.

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스트레스

지금까지 의사소통과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관련시킨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으로, 의사소통을 가족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영향력을 적게 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자원으로 파악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이정우와 장병욱(1987)은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유형과 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폐쇄유형인 차단형과 억제형이 스트레스와 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정민자(1992)는 임상-정상가족의 가족체계 및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정상가족보다 상담가족일 때 의사소통이 결핍되고 가족스트레스도 높다고 하였다. 김정옥과 박순희의 연구(1990)에서도 종교생활을 둔 가정이 스트레스수준이 높고 부모와 자녀갈등으로 인해 가족의 취약성이 나타나며, 이에 대한 전략적 행동변화로써 가족 성원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게 격려해주고 성원이 보다 독립적이고 지적, 문화적인 것에 관심을 증가시키고 가족성원이 함께하는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라 했다. 즉 문제 행동은 개인의 정신 내적 원인보다는 대

인관계 또는 가족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가족체계의 역기능 결과로 이해하고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McCubbin과 Patterson(1983)은 가족자원을 가족자부심·의사소통, 가족건강, 친척과의 교류, 경제적 풍요감의 4가지로 구성하여 가족자원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가족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상황에 잘 적응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인지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김양희와 전세경의 연구(1989)에서도 일치한다. 차은정(1992)은 부모와 자녀간에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 수록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 수록 모든 영역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김경아와 이정우의 연구(1990)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가족일수록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수준이 낮다고 하고 가족간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정도는 스트레스정도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예측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로 보아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 가족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따라 가족스트레스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유무, 월평균소득, 종교유무와 자녀의 성별, 형제수, 출생순위, 가족형태, 종교유무 등이다. 또한 의사소통변인은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구체적인 항목구성은 연구결과에서 제시되고 있다. 의사소통유형과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척도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유형

어머니와 청소년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알아보기 위

해서 사용한 척도는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PACI: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로서 부모용 설문지(Parent-Form)와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Adolescent Form)를 사용하였는데 문장표현을 우리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의사소통유형에 관한 문항은 각각 40문항으로 어머니와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유형이 상호개방적인 양방개방형, 자녀는 개방적이나 어머니가 차단하는 모개방-자개방형, 어머니와 자녀 둘다 차단적인 양방차단형, 어머니는 개방적이나 자녀가 이를 차단하는 모개방-자차단형으로 각 10문항씩 5점 Likert형으로 작성되었다. Cronbach's α 는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별로 .715에서 .875사이에 분포되었다.

2) 가족스트레스

가족스트레스척도는 McCubbin(1981)의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를 중심으로 부모자녀관계에 관련된 문항만을 추출하여 보완, 구성하였고 총문항수는 25문항이다. 가족스트레스원은 어머니와 청소년자녀 각각에게 지난 1년간 가족생활의 변화를 질문하였고, 가족스트레스인지는 어머니와 청소년자녀 각각 가족스트레스원을 통해 긴장과 부담감을 느끼는 정도를 5점 Likert형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내 긴장, 부부간 갈등, 부모자녀와의 갈등, 자녀들간의 갈등, 경제문제, 자녀의 진학문제, 대화부족 등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어머니와 자녀 각각 가족스트레스원 .811과 .744였으며, 가족스트레스인지에서 .916과 .859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광주직할시에 소재하고 있는 남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416명의 학생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와 딸 혹은 어머니와 아들 등 가족 2인을 한쌍으로 조사하였다. 배부한 결과

387쌍을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답안을 제외하고 총 684명 342쌍의 자료를 통계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1993년 5월 31일부터 4일간 40쌍 8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일부 수정보완한 설문지로 1993년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표 1〉에 나타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어머니의 경우 40대 연령층이 7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대, 50대의 순이며, 학력에서는 고졸의 경우가 가장 많고, 직업은 무직인 경우가 68.4%를 나타내었고, 종교를 79.3%가 갖고 있었으며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101만원 이상 150만원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약간 많게 조사되었으며 가족형태는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이 월등히 높은 82.5%로 나타났다.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처리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r), Chi-square 검증, F검증, Duncan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이상과 같은 통계처리는 SAS/PC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지각 및 가족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1) 의사소통유형의 일반적 경향

어머니와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유형의 일반적인 경향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의사소통유형은 4가지 특성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특성을 조사대상자의 유형으로 결정하였다. 어머니는 의사소통유형중 양방개방형이 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양방차단형, 모개방-자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 = 342)

		빈도	%			빈도	%
자녀성별	남	186	54.4	모 연 령	30대	46	13.5
	여	156	45.6		40대	271	79.2
형제순위	장 자 녀	126	36.8		50대	18	5.3
	중 자 녀	104	30.4		무응답	7	2.0
	말 자 녀	112	32.8	모 학 령	국졸이하	35	10.3
자녀종교	유	209	61.4		중 졸	94	27.6
	무	132	38.6		고 졸	166	48.6
가족형태	핵 가족	282	82.5		대졸이상	46	13.5
	확대가족	47	13.7	가족소득	50만이하	15	4.4
	기 타	13	3.8		51-100만	116	33.9
모 종교	유	271	79.3		101-150만	127	37.1
	무	71	20.7		151-200만	52	15.2
모 취업	유	109	31.9		201-300만	21	6.1
	무	233	68.1		301만이상	6	1.8
				무응답	5	1.5	

〈표 2〉 의사소통유형의 일반적 경향

유 형		f	%
어 머 니	양방개방형	206	60.2
	모차단-자개방형	20	5.9
	양방차단형	75	21.9
	모개방-자차단형	41	12.0
자 녀	양방개방형	121	35.4
	모차단-자개방형	14	4.1
	양방차단형	137	40.0
	모개방-자차단형	70	20.5

차단형, 모차단-자개방형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는 양방차단형이 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양방개방형, 모개방-자차단형, 모차단-자개방형순으로 나타났다. 이정우와 김규원(1989)의 연구에서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유형에서도 쌍방차단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모개방-자차단형, 모차단-자개방형은 적은 비율을 차지한 결과와 일치한다.

2) 가족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가족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은 〈표 3〉과 같다.

〈표 3〉 가족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대상	어 머 니		자 녀	
	M	SD	M	SD
가족스트레스원	9.77	4.88	11.99	3.98
가족스트레스인지	62.77	16.47	69.12	14.13

가족스트레스에서 자녀가 인지하는 가족스트레스원은 11.99이고, 어머니가 인지하는 가족스트레스원은 9.77로 자녀가 높게 나타나고 자녀가 인지하는 가족스트레스인지는 69.12, 어머니가 인지하는 가족스트레스인지는 62.77로 어머니와 자녀의 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어머니보다 자녀가 가족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의사소통변인에 따른 의사소통유형과 가족스트레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의사소통변인에 따른 의사소통유형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의사소통변인에 따른 의사소통유형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어머니의 경우 연령만이 어머니가 지각한 의사소통유형에 유의한 차($p<.01$)가 있었고 나머지 학력, 직업유무, 소득, 종교유무에 따라서는 의사소통유형에 차

이가 없었다. 30, 40대의 어머니에게서 양방개방형이 높게 나타났으나, 40대보다는 30대에서 양방개방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서, 어머니의 연령이 의사소통유형과 관계가 있는 것은 연령이 젊을수록 자녀와 대화하는데 견해차이가 적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폭이 더 넓기 때문일 것이다.

자녀의 경우 성별만이 의사소통유형에 유의한 차이($p<.01$)를 보였고 형제수, 형제순위, 종교, 가족형태 등은 의사소통유형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의사소통변인에 따른 의사소통유형

변인		유형	N	양 방	모차단	양 방	보개방	χ^2
				개방형 N(%)	자개방형 N(%)	차단형 N(%)	자차단형 N(%)	
모연령	30대		46	31(67.4)	4(8.7)	3(6.5)	8(17.4)	7.82*
	40대이상		289	171(59.2)	16(5.5)	69(23.9)	33(11.4)	
사녀성별	여		156	42(26.9)	9(5.8)	65(41.7)	40(25.6)	11.70**
	남		186	79(42.5)	5(2.7)	72(38.7)	30(16.1)	
어 머 니	하루평균 대화시간	30분 정도	134	65(48.5)	9(6.7)	37(27.6)	23(17.2)	13.48**
		1시간정도	208	141(67.8)	11(5.3)	38(18.3)	18(8.7)	
	대화시간의 지각	충분하다	80	62(77.5)	6(7.5)	7(8.8)	5(6.3)	22.93***
		보통이다	129	76(58.9)	4(3.1)	36(27.9)	13(10.1)	
니	의사소통 정도	충분하지 않다	133	68(51.1)	10(7.5)	32(24.1)	23(17.3)	12.43*
		하지 않는다	42	19(45.2)	1(2.4)	17(40.5)	5(11.9)	
		보통이다	250	153(61.2)	16(6.4)	48(19.2)	33(13.2)	
	많이한다	50	34(68.0)	3(6.0)	10(20.0)	3(6.0)		
자 녀	하루평균 대화시간	30분 정도	167	33(19.8)	7(4.2)	72(43.1)	55(32.9)	48.05***
		1시간정도	175	88(52.3)	7(4.0)	65(37.1)	15(8.6)	
	대화시간의 지각	충분하다	72	45(62.5)	1(1.4)	23(31.9)	3(4.2)	34.21***
		보통이다	136	40(29.4)	6(4.4)	57(41.9)	33(24.3)	
니	주로 대화하는 대상	충분하지 않다	134	36(26.9)	7(5.2)	57(42.5)	34(25.4)	35.48***
		부모	75	41(54.7)	3(4.0)	24(32.0)	7(9.3)	
		친구	186	44(23.6)	9(4.8)	80(43.0)	53(28.5)	
	모두(부모, 친구)	67	31(46.3)	1(1.5)	29(43.3)	6(9.0)		
	의사소통 정도	하지않는다	51	6(11.8)	3(5.9)	24(47.1)	18(35.3)	22.99***
	보통이다	245	87(35.5)	10(35.5)	101(41.2)	47(19.2)		
	많이한다	46	28(60.9)	1(2.2)	12(26.1)	5(10.9)		

* $p<.05$ ** $p<.01$ *** $p<.001$

머니와 의사소통할 때 남학생의 경우 양방개방형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양방차단형도 또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양방차단형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보아 동성부모자녀관계보다는 이성부모자녀관계에서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청소년기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부모와 의견충돌하는 비율이 높다고 밝힌 최석련(1977), 김정희(1987)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김순옥, 1990; 장호선, 1986; 조은경, 1992)이 아들보다 딸이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녀의 성별을 의사소통유형의 차이를 결정짓는 분명한 요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어머니의 경우 하루 평균 대화시간에 있어서는 대화시간이 30분 정도, 1시간정도인 경우 양방개방형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화시간이 30분 정도일 때 양방개방형의 비율도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화시간의 지각에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 양방개방형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화시간의 충족도가 의사소통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경우 하루 평균 대화시간, 대화시간의 지각에서 어머니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주로 대화하는 대상에서도 부모와 대화를 하는 경우 양방개방형이 높게 나타났고, 친구의 경우 양방개방형이 높게 나타났으나 양방차단형 또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결과로서 친구와의 대화시 친밀한 대화를 나눈 반면 적절한 개방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을 충분히 한다고 지각한 경우 양방개방형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자녀간의 대화장애요소로서 대화시간의 부족과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견해차이, 세대차이가 중요한 요인임을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어(장호선, 1986; 김규원·이정우, 1989) 부모자녀간 밀접한 관계유지에 충분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임이 드러났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의사소통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의사소통변인별로 가족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족스트레스원은 어머니 학력($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연령, 소득, 직업유무, 종교유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스트레스인지에도 어머니의 학력($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중 가족스트레스원, 가족스트레스인지에 특별히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없었다. 여러 선행 연구(남유리, 1989; 이정우·최덕경, 1992)에서도 어머니의 학력이 스트레스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지적한 바가 있다.

의사소통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를 보면 어머니는 가족스트레스원(사건)과 가족스트레스인지에 하루평균대화시간, 대화시간의 지각, 대화시간이 부족한 이유, 대화내용이나 대화방식에 대한 만족도, 자녀와 대화하고 싶은 경우, 자녀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정도, 의사소통정도, 의사소통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자녀는 하루평균대화시간, 대화시간의 지각, 대화시간이 부족한 이유, 대화내용이나 대화방식에 대한 만족도, 부모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정도, 의사소통만족도에 따라 가족스트레스원(사건)과 가족스트레스인지에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와 자녀 모두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화시간에 대한 지각이 충분하지 않을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대화시간이 부족한 이유에서 자녀는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부족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어머니는 자녀에게 대화하고 싶은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와 청소년자녀는 대화내용이나 대화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지각한 경우 스트레스는 현저히 높게 나타나서 대화방식이나 대화기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어머니와 청소년자녀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정도에서 친구와 대화정도가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결과로 보아 친구관계가 스트레스에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의사소통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변인		가족스트레스	N	가족스트레스원			가족스트레스인지		
				M	F	Duncan	M	F	Duncan
모	학 력	국졸이하	35	11.57	2.44*	A	70.69	3.89**	A
		중졸	94	10.15		AB	63.85		B
		고졸	166	9.27		B	61.44		B
		대졸이상	46	9.50		B	59.67		B
어 머 니	하루평균 대화시간	30분 미만	134	10.88	9.05***	A	66.38	6.65***	A
		30분-1시간미만	159	9.52		A	61.39		B
		1시간 이상	49	7.57		B	57.35		B
	대화시간의 지각	충분하다	80	8.75	11.08***	B	57.50	10.32***	B
		보통이다	129	8.85		B	61.30		B
		충분하지 않다	133	11.29		A	67.36		A
	대화시간이 부족한 이유 (N=256)	자녀가 대화하기 싫어함	23	13.74	7.84***	A	73.87	5.50***	A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부족	203	9.72		B	63.02		B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음	20	10.95		B	66.37		AB
	대화하고 싶은 경우	자녀기분이 나빠보일때	120	9.63	3.93**	B	62.39	4.81***	BC
		분제가 생겼을 때	57	11.93		A	70.21		A
		학가할 때	71	8.68		B	58.35		C
자녀기분이 좋아보일때		29	9.47	B		62.72	BC		
대화내용과 방식에 대한 만족도	만족하다	117	8.85	20.33***	B	58.97	18.80***	B	
	보통이다	146	8.94		B	60.74		B	
	만족하지 않는다	79	10.68		A	72.14		A	
자녀의 다른 사람과 대화 정도	사녀	53	9.62	4.77**	B	61.08	3.82**	B	
	남편	104	9.71		B	61.96		B	
	모두 비슷함	130	8.77		B	60.45		B	
	친구	43	11.93		A	69.91		A	
의사소통 정도	하지 않는다	42	11.14	2.94*	A	63.86	4.27*	A	
	보통이다	250	9.76		BA	63.83		A	
의사소통 만족도	만족하지 않는다	31	10.71	2.40*	A	66.68	6.27**	BA	
	보통이다	273	9.87		BA	64.16		A	
	만족하다	38	8.29	B	54.45	B			
	하루평균 대화시간	30분 미만	167	13.00	11.67***	A	72.03	7.17***	A
30분-1시간미만		134	11.19	B		66.34	B		
1시간 이상		41	10.51	B		66.37	B		
대화시간의 지각	충분하다	72	10.43	12.06***	C	63.42	13.12***	C	
	보통이다	136	11.71		B	67.99		B	
	충분하지 않다	134	13.13		A	73.33		A	
대화시간이 부족한 이유 (N=177)	어머니가 대화하기 싫어함	116	11.86	12.60***	B	70.47	5.84**	B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부족	29	15.21		A	78.09		A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음	32	13.91		A	75.84		AB	
대화내용과 방식에 대한 만족도	만족하다	119	10.29	31.15***	C	64.50	13.41***	C	
	보통이다	137	11.96		B	69.83		B	
	만족하지 않는다	86	14.40		A	74.38		A	
어머니의 다른 사람과 대화 정도	어머니	54	10.20	12.04***	B	63.63	5.73***	B	
	아버지	21	10.43		B	66.24		AB	
	모두 비슷함	67	10.79		B	67.52		AB	
	친구	186	13.05		A	71.68		A	
의사소통 만족도	만족하지 않는다	54	13.91	11.55***	A	73.09	6.48***	A	
	보통이다	251	11.84		B	69.22		A	
	만족하다	36	10.83		C	62.33		B	

*p<.05 ** p<.01 *** p<.001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정도에 따른 가족스트레스를 보면 어머니의 경우 대체로 의사소통정도가 낮을수록 가족스트레스원(사건)이 많고 스트레스인지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만족도에 따른 가족스트레스를 보면 대체로 어머니와 청소년자녀 모두 의사소통만족도가 낮다고 지각한 경우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3.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1)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가족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 의사소통변인, 의사소통특성이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

의사소통변인, 의사소통특성이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은 <표 7>과 같다.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을 살펴보면에 있어서 앞서 분석한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이 미미하므로 본 회귀분석상의 독립변인에서 제외시켰다. <표 7>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스트레스원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어머니의 경우 32%이고, 가족스트레스인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42%이다. 어머니의 가족스트레스원에 모

<표 6>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의사소통유형		가족스트레스 N	가족스트레스원			가족스트레스인지		
			M	F	Duncan	M	F	Duncan
어 머 니	양방개방형	206	8.17	24.19***	C	56.90	27.49***	B
	모차단-자개방형	20	13.75		A	74.45		A
	양방차단형	75	11.48		B	70.25		A
	모개-자차단형	41	12.78		AB	72.81		A
자 녀	양방개방형	121	9.60	28.42***	B	61.99	18.56***	B
	모차단-자개방형	14	13.36		A	73.71		A
	양방차단형	137	13.13		A	73.48		A
	모개방-자차단형	70	13.64		A	71.99		A

*** p<.001

어머니와 자녀 모두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경우 양방개방형을 제외한 유형에서 가족스트레스원, 가족스트레스인지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모차단-자개방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에서도 양방개방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 가족스트레스원과 가족스트레스인지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양방개방형은 가족스트레스를 가장 낮게 하는 긍정적 요인으로서 작용하지만 나머지 모차단-자개방형, 양방차단형, 모개방-자차단형은 가

차단-자개방점수($\beta = .19$), 모개방-자차단점수($\beta = .34$)에서 독립적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가족스트레스인지에서도 모차단-자개방점수($\beta = .27$)와 모개방-자차단점수($\beta = .40$)에서 독립적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의사소통점수 중 모차단-자개방점수, 모개방-자차단점수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지각한 가족스트레스원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은 33%로 의사소통정도($\beta = .13$), 모차단-자개방점수($\beta = .13$), 양방차단점수($\beta = .18$)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가족스트레스인지에 미치는 독

립적 영향력은 24%로 대화시간에 대한 느낌($\beta = .15$)과 의사소통정도($\beta = .15$), 모차단-자개방점수($\beta = .21$), 모개방-자차단점수($\beta = .20$)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족스트레스에 자녀의 경우 의사소통정도, 의사소통점수중 모차단-자개방점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이 가족스트레스원이나 가족스트레스인지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가족스트레스감소에 의사소통이 가족자원으로서 작용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유형의 일반적 경향에서 어머니는 양방개방형비율이 가장 많았고 자녀는 양방차단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은 가족스트레스원(사건)과 가족스트레스인지에서 청소년자녀가 어머니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의사소통변인에 따른 의사소통유형을 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자녀의 성별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의사소통변인에서 주로 대화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의사소통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를 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만이 가족스트레스원과 가족스트레스인지에 차이를 보였다.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표 7〉 의사소통변인과 의사소통특성이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가족스트레스		가족스트레스원		가족스트레스인지	
		B	β	B	β	B	β
어 머 니	대화시간	-.40	-.07	-.90	-.04	-.90	-.04
	대화에 대한 느낌	.04	.01	.50	-.03	.50	-.03
	대화내용이나 방식의 만족도	.44	.07	1.70	.09	1.70	.09
	의사소통정도	-.02	-.01	.07	.02	.07	.02
	의사소통만족도	-.01	-.01	-.08	-.02	-.08	-.02
	양방개방성	-.04	-.05	.10	.03	.10	.03
	모차단-자개방성	.16	.19**	.75	.27***	.75	.27***
	양방차단성	-.02	.03	-.05	-.02	-.05	-.02
	모개방-자차단성	.23	.34***	.91	.40***	.91	.40***
R ²		.32***		.42***			
자 녀	대화시간	-.15	-.03	-.06	-.04	-.06	-.04
	대화에 대한 느낌	.37	.09	2.19	.15**	2.19	.15**
	대화내용이나 방식의 만족도	.45	.11	.56	.04	.56	.04
	의사소통정도	.12	.13*	.49	.15**	.49	.15**
	의사소통만족도	-.06	-.08	-.24	-.09	-.24	-.09
	양방개방성	-.05	-.09	.14	.07	.14	.07
	모차단-자개방성	.09	.13*	.52	.21***	.52	.21***
	양방차단성	.11	.18**	.22	.10	.22	.10
	모개방-자차단성	.09	.15	.45	.20**	.45	.20**
R ²		.33***		.24***			

* p<.05 ** p<.01 *** p<.001

가족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변인에서 어머니와 청소년자녀 모두 가족스트레스원과 가족스트레스인지에서 하루 평균대화시간, 대화시간의 지각, 대화시간이 부족한 이유, 대화내용이나 대화방식에 대한 만족도, 다른 사람과의 대화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어머니는 여기에 덧붙여 사녀와 대화하고 싶은 경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의사소통정도나 의사소통만족도가 낮은 집단일수록 가족스트레스원(사건)이 많고 스트레스인지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는 어머니와 청소년자녀 모두 의사소통유형이 가족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와 청소년자녀 모두 양방개방형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소통유형에서 가족스트레스원, 가족스트레스인지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변인, 의사소통유형이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에서 어머니의 가족스트레스원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은 32%이고, 가족스트레스인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42%였는데, 어머니의 경우 모차단-자개방점수와 모개방-자차단점수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 가족스트레스원에 미치는 영향력은 33%였는데, 의사소통정도, 모차단-자개방점수, 양방차단점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스트레스인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24%로 대화시간에 대한 느낌, 의사소통정도, 모차단-자개방점수와 모개방-자차단점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통이 가족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터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스트레스에 있어서 지각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자녀보다 어머니가 의사소통유형을 개방적으로 지각했는데 이 결과는 어머니와 자녀가 의사소통유형에 대해 정확하게 상호인지하지 못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

해서는 상호의사소통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자녀이해를 위한 부모교육의 개발, 확산,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으나 현대에는 많은 연구에서 이 변인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아닌 의사소통변인에 따라 의사소통유형과 가족스트레스에 크게 차이가 나타난 결과로서 궁극적으로 의사소통변인이 의사소통유형화와 가족의 병리현상인 가족스트레스에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와 청소년자녀관계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친밀한 대화가 오히려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세째, 현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유형이 서로 일치되지 않거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각한 갈등이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의사소통유형은 상대방을 이해, 수용하며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출할 수 있는 상호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어머니와 자녀가 바람직한 의사소통유형을 통해 보다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가족문제 해결에 공동노력해야 함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권경희. 한국도시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석사논문. 1985.
- 2) 김혜진.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대학원석사논문. 1992.
- 3) 김경아, 이정우.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생활상의 stress수준 및 관련변인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990. 101-117.
- 4) 김규원, 이정우.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유형 및 만족도 연구. 대한가정학회

- 지 27(3). 1989. 147-159.
- 5) 김순옥. 10대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개방성과 그 귀인 연구. 동국대학교학원 박사논문. 1990.
 - 6) 김 양희, 전 세경.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7). 1989. 25-42.
 - 7) 김용미. 가족스트레스와 가족 커뮤니케이션의 연계성에 관한 기초연구. 전주교대논문집 제 27집. 1991. 189-205.
 - 8) 김정옥, 박순희. 가족스트레스관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3). 1990. 127-145.
 - 9) 김진숙, 유영주.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대화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1985. 77-91.
 - 10) 김정희. 어머니와 자녀간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학교학원 석사논문. 1987.
 - 11) 김진희. 부모-청소년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9.
 - 12) 남유리.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지각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학교학원 석사논문. 1989.
 - 13) 박난희. 가정생활에서 주부가 받는 스트레스 요인과 그 적응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학교학원 석사논문. 1987.
 - 14) 이결남. 어머니와 여고생간의 커뮤니케이션형태 및 내용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학교학원 석사논문. 1989.
 - 15) 이도영.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수준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
 - 16) 이석경. 사춘기자녀와 아버지와의 대화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학원 석사논문. 1987.
 - 17) 이정우, 장병옥. 기혼 여성의 의사소통유형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아세아연구. 1987. 215-241.
 - 18) 이정학. 고교생의 스트레스유형과 스트레스결과와의 관계. 전남대학교학원 석사논문. 1992.
 - 19) 장호선.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성심여대학교학원 석사논문. 1986.
 - 20) 정민자. 임상-정상가족의 가족체계유형 및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과 대응책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2). 1992. 189-207.
 - 21) 조은경. 부모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학원 박사논문. 1992.
 - 22) 차은정. 청소년스트레스와 가족체계 및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학원 석사논문. 1992.
 - 23) 최덕경, 이정우.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문제 인지와 스트레스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1992. 115-130.
 - 24) 최석련. 청소년의 의식구조 조사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7.
 - 25) 최선남. 청소년의 어머니와 의사소통유형과 갈등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학원 석사논문. 1990.
 - 26) 홍기선.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나남출판사. 1985.
 - 27) Barnes, H. I., & Olson, D. H.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982.
 - 28) ———.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2), 1985. 438-447.
 - 29) Boss, P. G. *Family stress management*, Family studies Text Series and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88.
 - 30) Germer, S. Self-concept and communication, *Family Coordinator*, 10, 1974. 421-423.
 - 31) Gordon, T. *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Inc. 1975.
 - 32) Hill, R. *Generic features of families under stress*, *Social Casework*, 99(1), 1958. 135-150.
 - 33) McCubbin, H. I.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F.I.L.E.). St. Paul,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981.
 - 34) McCubbin, H. I., Joy, C. B., Cauble, A. E., Comesu, J. K., Patterson, J. M & Needle, R. H. Family stress and coping: A Decade Review, 42

- (4), *Th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980 855-872.
- 35) McCubbin, H. I. & Patterson J. M. *The Family stress process* :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 and adaption, in McCubbin, H. I., Sussman, M. B. & Patterson, J. M.(eds), *Marriage and family review : social stress and the Family*, New York Haworth Press. 1983.
- 36) Nelson, P. T. & Nelson, C. W. Personal and family stress managem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73(3), 1981. 34.
- 37) Norton, R. A foundation of a communication syle construct,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 1978. 99-112.
- 38) Rithie, L. D. & Fitzpatrick, M. A.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measuring interpersonal percep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mmunication Research*, 18(4), 1990. 548-565.
- 39) Satir, V. *Peoplemaking*, Palo Alto, Calf : Science and Behavior Books, 1972.
- 40) Selye, H. *Stress without distress*, Karen E. Claus and J. T. Bailey, *Living with stress and promoting well-being*, 1980. 9-15.